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주변인 역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 Role Behaviors in Adolescent Cyberbullying

이 소 영**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Lee, So-Young

YeongGwang Adolescent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Hyun-So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use of smartphones became widespread, cyberbully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became a serious problem among adolescents. Just like traditional bullying, there are many bystanders in addition to victims and perpetrators in cases of cyberbullying. Bystanders often play a major role in bullying by either perpetuating or stopping it. The potentially unlimited audience in the online world suggests that the role of bystanders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cyberbullying.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bystanders of cyberbullying and their causal factors. Given the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three types of cyberbullying bystander roles, which are the defender, the outsider and the bully-follower. This study focuses on intra-individual factors such as guilt and shame moral emotions, attribution styles (attributions to perpetrator's fault, victim's fault, and both perpetrator and victim's fault), defender self-efficacy, and perceived social status in class, which are already discussed as important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bystander roles in traditional bullying. A total of 822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completed questionnaires. Out of those students, data from 244 students who reported having witnessed cyberbullying in the past year,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among defender, outsider, bully-follower, and no role were found to be 36.8%, 29.2%, 22.6%, and 11.3%, respectively, for boys and 33.3%, 28.3%, 28.3%, 10.1%, respectively, for girls.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ven psychological factors and three role behaviors were examin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mean differences among three bystander role group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of the 7 intra-individual factors seemed to be related to three bystander roles. Particularly, guilt-proneness, defender self-efficacy, attribution to the victim's fault, and attribution to the perpetrator's fault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bystander role behaviors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effective strategies related to preventing cyberbullying.

주제어(Keywords) :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주변인 역할 행동(bystander role behaviors),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 청소년(adolescent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E-mail: khs1004@hanyang.ac.kr)

I. 서론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통신 기기의 확산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모바일 메신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통의 중요한 통로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했다(박현수, 정혜원, 2018; Holfeld, 2014). 사이버불링은 SNS, 문자 메시지, 게임, 채팅 어플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특정인에게 심리적, 정신적 해를 가하는 행위로, 거짓 정보의 유포, 소외와 배척,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동영상의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을 포함한다(남상인, 권남희, 2013; 문선아, 2016). 국내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29.5%가 사이버불링의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높은 피해 발생 빈도는 피해 청소년의 우울, 자살 등의 심리적응 문제와 맞물려 사이버불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과거의 사이버불링이 PC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사이버불링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흔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이는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괴롭힘이 온라인 장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며(최숙영,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청소년의 또래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를 제기한다. 제기한 주장처럼,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학교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askauskas와 Stoltz(2007)는 사이버불링 피해자 중 85%가 학교 괴롭힘 피해자였으며 사이버불링 가해자 중 95%가 학교 괴롭힘에서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들어 역할 연속성 가설(role continuity hypothesis)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불링 간 중복 발생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검증되고 있다(Kowalski & Limber, 2013; Salmivalli & Pöyhönen, 2012; Tarablus, Heiman, & Olenik-Shemesh, 2015). 한편, 학교 공간에서의 직접적 괴롭힘(예,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불링이 증가하는 상보적 증감 현상도(교육부, 2018)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학교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통적 불링과 구분된다(Song & Oh, 2018). 이 중 첫 번째 차이는 사이버 공간의 ‘비가시성(invisibility)’에서 비롯되는데, 사이버불링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덜 인지하는 특성을 보이며(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Patchin & Hinduja, 2006), 이로 인해 가해 행동을 보다 더 쉽게 취할 잠재력을 지닌다. 두 번째 차이는 사이버 공간의 반복성, 확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시물은 다수의 주변인에게 공개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특징을 나타낸다(Slonje & Smith, 2008). 마지막 차이는 사이버 공간의 시공간 비제약성과 관련이 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링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학교를 벗어나면 괴롭힘을 피할 수 있었던 전통적불링과는 달리 사이버불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가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Kowalski & Limber, 2007; Raskausks & Stoltz, 2007).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불링은 역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도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전통적불링보다 잠재적 위협이 더 큰 괴롭힘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오인수, 2011; Kowalski et al., 2008; Williams & Guerra, 2007). 사이버불링은 피해자에게 분노와 무력감, 두려움, 슬픔은 물론(Hoff & Mitchell, 2009) 자살 생각과 시도를 유발하며(Hinduja & Patchin, 2010), 더 나아가 가해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에게도 심리적 손상을 초래한다(Beran & Li, 2008; Hoff & Mitchell, 2009). 이렇듯 사이버불링은 또래 괴롭힘의 주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형편이다.

다양한 방안이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또래 간 괴롭힘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제안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예방과 개입을 위해 주변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주변인은 크게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 가해자 편에 서서 행동하는 동조자로 구분된다(서미정, 2008). 이미 많은 선행연구는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관

이나 가해자에 대한 동조가 괴롭힘을 심화시키는 반면 주변인의 피해자 방어가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완화시킴을 보여주고 있다(최지훈, 남영옥, 2017; Lynn Hawkins, Pepler, & Craig, 2001; O'Connell, Pepler, & Craig, 1999; Salmivalli, 1999; Twemlow, Fonagy, & Sacco, 2004). 이에 주변인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방관자나 동조자적 주변인을 방어자적 주변인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인의 역할은 전통적불링보다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Jones, Mitchell, & Turner, 2015; Quirk & Campbell, 2015). 실제 대부분의 사이버불링 피해 학생은 가해자를 알고 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주변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힘의 불균형을 균형 혹은 반대 방향으로의 불균형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인의 행동에 따른 또래 관계 역동의 변화는 Willard(2007)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는데, 주변인이 방어 행동을 보인 경우 사이버불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던 반면, 주변인이 방관 행동을 보인 경우 사이버불링이 심화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이 갖는 반복성과 확산성으로 사이버불링은 전통적불링 상황에서도보다 더 많은 잠재적 주변인을 양산하게 된다(이주형, 안순철, 2013; Slonje & Smith, 2008). 따라서 주변인의 역할은 전통적불링보다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한 발달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청소년 집단에서 사이버불링의 다양한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는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불링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문헌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박진희, 권미희, 2014; 백지현, 2010; 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귀인성향(김현주, 2003; 송지연, 2016; 신혜정, 2017; 장은영, 2012), 방어자 효능감(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원, 2016; 김은아, 이승연, 2011), 지각된 학급내 지위(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원, 2016; 백지현, 2010; 심희옥, 2008)가 전통적 불링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 구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높은 죄책감, 높은 잘못에 대한 가해자귀인, 높은 방어자 효능감, 및 높게 지각된 사회적 지위는 방어자 주변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지만, 낮은 죄책감, 높은 잘못에 대한 피해자귀인,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동조자 주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방관자적 주변인 성향은 죄책감,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위와 부적 상관을, 잘못에 대한 피해자귀인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수치심의 경우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일부 연구는 방관, 동조 행동과의 정적 상관을(백지현, 2010), 일부 연구는 남학생의 방관 행동과의 부적 상관을(최기원, 2012) 보고하고 있다.

전통적불링 상황에서 주변인 역할 구분에 유용한 요인을 찾는 노력은 고찰한 바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주변인 역할 구분에 유용한 요인을 찾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물론 일부 연구자는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고아라, 2016; 송지연, 2016; 홍솔지, 최윤경, 2017), 하지만 이들 연구는 관련 요인으로 공감능력과 같은 단일요인에 집중하거나 여러 주변인 역할 중 방어자 주변인 역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 그리고 다양한 주변인 역할에서 요인 간 관계성이 어떤 차이를 나타낼지는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인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을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로 나누고, 이들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개인내 요인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이 주변인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개인내 요인에 집중한 이유는 사이버불링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므로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내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었다(송지연,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내 요인으로 전통적불링에서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죄책감과 수치심(박진희, 권미희, 2014; 백지현, 2010; 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귀인성향(김현주, 2003; 송지연, 2016; 신혜정, 2017; 장은영, 2012), 방어자 효능감(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원, 2016; 김은아, 이승연, 2011), 지각된 학급내 지위(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원, 2016; 백지현, 2010; 심희옥, 2008)에 주목하였다. 또한, 남녀에 따른 공격성 특성에서의 차이를 시사하는 연구결과(김민지, 2013; 백지현, 2010; 최기원, 2012)와 공격성 특성(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에 있어 성차의 고려가 중요함에도 많은 공격성 선행연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백지현, 2010)에 기반하여,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남녀 간 성차가 발견되는지 함께 조명해 보았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 역할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개인내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사이버불링 현상의 심층적 이해와 사이버불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요성을 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없음)의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상관 및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검토된 청소년 성별에 따른 심리적 변인(도덕적 정서, 귀인성향,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수치심, 죄책감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이차 정서에 해당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은 도덕적 행동과 비행 및 공격 행동 연구에서 원인적 혹은 중재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Tangney & Dearing, 2002). 이차 정서는 자신 혹은 타인의 기준(standard)을 인식, 그에 맞춰 행동을 평가한 결과 야기되는 정서로(Lewis, 2003), 이에 속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기인식뿐 아니라 자기성찰(reflection)을 포함한다고 하여 자기 의식적 정서, 자기 평가적 정서로 불린다(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과 죄책감은 과거에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유사 개념으로 취급되었으나(Eisenberg, 1986; Harris, 1989), 보다 최근에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는 정서로 취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ewis(1971)는 자기(self)-행동(behavior) 간 분화를 기준으로 두 정서를 구분하였다. 즉, 수치심은 자기-행동 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전체적 자기(entire self)에 맞춰진 경험인데 반해(예, “내가(self)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죄책감은 자기-행동 간 분화가 이루어져 평가의 초점이 내가 행한 구체적 행동에 맞춰진 경험(예, “내가 그 끔찍한 일(behavior)을 저질렀어.”)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치심을 느끼면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무가치감, 무력감이 뒤따르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면 자신이 저지른

특정 행동에 대한 걱정, 후회, 반성적 사고가 뒤따르게 된다(Tangney & Dearing, 2002). 특히, 자기-행동 간 분화가 이루어진 죄책감의 경우, 고백하고 사과하는 식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동기가 뒤따르게 되어 행동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김경희, 2002; Tangney & Dearing, 2002). 따라서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및 감정입 수준은 높고, 공격 및 행동화 경향성은 낮을 거란 예측이 가능하다.

문헌을 보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후회, 반성적 태도, 잘못을 고치려는 동기가 뒤따르는 죄책감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경희, 2002; Tangney & Dearing, 2002). 반면, 수치심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드러낸다. 몇몇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위반 행동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관계성을 확인하였으나(김은미, 2006; 류설영, 1998; 최보가, 유연옥, 2000), 반대로 수치심이 자아에 대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동반하여 오히려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발견한 연구도 있다(박진희, 권미희, 2014; 한세영, 2007).

한편, 전통적불링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과 도덕적 정서 간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죄책감은 비교적 일관되게 주변인의 방어 행동과 정적 관계를, 방관이나 동조 행동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박진희, 권미희, 2014; 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하지만, 문제에 직면하기보다 숨거나 회피하려는 동기를 일으키는 수치심의 경우는(Lewis, 1971) 죄책감과는 비

교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먼저 주변인 방어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고(백지현, 2010; 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주변인 방관이나 동조 행동과는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방관, 동조 행동과 수치심의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백지현, 2010)가 있는 반면 남학생의 방관 행동과 수치심의 부적 상관을 보인 연구(최기원, 2012)도 있어 연구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치심을 ‘자신감’, ‘시선 의식’, ‘자책감’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 방관행동과의 상관을 살펴본 박진희와 권미희(2014)의 연구에서는 방관행동이 수치심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부적 상관, ‘시선 의식’, ‘자책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은 전통적불링에서 주변인 역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죄책감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방어 행동을 높이고 방관 및 동조 행동을 낮추는 요인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상황에서도 죄책감과 관련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수치심의 경우 어떤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2. 귀인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귀인(attribution)이란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Shultz와 Schleifer(1983)는 개인이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다음의 4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해를 입혔는지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책임이 행위 당사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해 비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때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행위 당사자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기반하여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 과정에는 행위 관찰자의 지각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때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지각하는 개인은 그 행위가 행위자의 노력, 성격, 능력과 같은 내적 속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 운, 상황과 같은 외적 속성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처럼 무엇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는지 개인이 내리는 판단이 곧 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괴롭힘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통적불링 상황에서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귀인하는 경우 방관 혹은 동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ini, Pozzoli, Borghi, & Franzoni, 2008). 한편,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귀인의 하위 요인을 피해자 귀인, 가해자 귀인, 쌍방 귀인으로 분류하여 주변인 역할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동조자는 피해자 귀인, 방어자는 가해자 귀인, 방관자는 쌍방귀인의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김현주, 2003; 송지연, 2016).

전통적불링 상황에서의 귀인과 주변인 역할 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잘 정립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가 사이버불링 상황에서도 관찰되는지는 명확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잘못을 피해자, 가해자, 쌍방 귀인하는 성향이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주변인 역할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방어자 효능감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Bandura, 2001)으로, 특히 방어자로서 잘 기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는 방어자 효능감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불링 상황에서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를 옹호하고 방어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방어자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기도 한다(Dovidio, Piliavin, Schroeder, & Penner, 2017). 그렇기에 상황을 통제하고 개입할 만한 자기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다면, 비록 괴롭힘이 잘못임을 인지할지라도, 개인은 쉽사리 방어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적불링 상황에서 방어자들은 방관자보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았으며(Caprara & Steca, 2005) 이러한 방어자 효능감과 주변인 방어 행동 및 역할의 관련성은 후속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

원, 2016; Barchia & Bussey, 2011). 또한, 방어자 효능감은 주변인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이탈 수준과 관계없이 방어 행동을 증가시키고 방관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rnberg & Jungert, 2013).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불링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 상황에서도 방어자 효능감이 주변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4. 지각된 사회적 지위와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또래 집단 내 사회적 지위는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청소년은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염려하며(Eder, 1985),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는 청소년의 성격, 가치관,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물론 이후 성인기 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문혁준, 2000; 서남서, 1996; 이숙, 정미자, 1995).

또래내 사회적 지위는 인기도라는 이름으로 측정되며 인기도는 다시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로 구분되어 측정된다. 사회측정적 인기도는 또래에 의해 선호되는 친구, 인기 있는 친구로 지명된 것에 기초하여 측정되는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개인이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정도, 인기 있는 정도에 대한 자가 평가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또래내 사회적 지위와 주변인 역할 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측정적 인기도는 방어자 집단에서 높고 친가해자 집단에서

낮은 양상이 관찰된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친가해자와 방어자 집단 모두에서 높고 방관자와 피해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이 관찰되었다(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원, 2016; 백지현, 2010; 심희옥, 2008). 하지만 또래지명법은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또래내 지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각하는 정확도는 다르겠지만, 스스로 지각한 지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각된 실제적 사회적 지위보다 그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Cillessen & Bellmore, 1999; Mayeux & Cillessen, 2008).

높은 지위의 청소년이 이미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오는 이익을 즐기고 있다면, 그는 물리적·관계적 공격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선뜻 취할 것이다. 그들은 괴롭힘 상황에 노출되게 될 때, 자신의 높은 지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끌만한 사회적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힘 상황에 기꺼이 참여하여 방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사회적 지위보다는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한 지위가 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Cillessen와 Mayeux(2004)의 연구에서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중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스스로 지각한 인기도와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실제 또래 선호도는 낮으나 스스로 지각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 공격성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실제적 지위보다는 스스로 지각한 사회적 지위가 주변인의 역할 행동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위가 주변인 역할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계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사전 동의를 얻은 서울과 경기 소재 중학교 7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학급에 연구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가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 완성에는 20분이 소요되었다. 참가자는 참가의 대가로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2. 연구도구

1)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과 유형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은 Salmivalli 등(1996)이 제작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바탕으로 서미정(2008)이 구성한 척도를 다시 고아라(2016)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RQ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을 조력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서미정(2008)은 조력자와 강화자가 모두 가해 동조라는 동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둘을 ‘동조자’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결합하였다. 고아라(2016)는 서미정(2008)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이버불링 상황의 주변인 역할 행동을 방어, 방관, 동조로 구분하였고, 기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또래 괴롭힘 문항들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척도는 방관자, 방어자, 동조자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각각 6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은 5점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 7개 중학교를 표집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822명의 학생들 중 최근 1년간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한 244명(29.6%)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대상군 중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참가자의 인구통

<표 1> 연구 참가자 특성

특성	구분	표집된 대상군 빈도(%)	불링목격자 빈도(%)
성별	남	432명(52.6%)	106명(43.4%)
	여	390명(47.4%)	138명(56.6%)
학년	중1	227명(27.6%)	76명(31.1%)
	중2	310명(37.7%)	85명(34.8%)
	중3	285명(34.7%)	83명(34.0%)
총 합		822명(100%)	244명(100%)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해당 역할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의 Cronbach’s α 는 방관자 .91, 방어자 .85, 동조자 .82였다.

척도는 각 주변인 역할 행동 정도의 측정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주변인 역할 유형화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Salmivalli (1999)와 서미정(2008)은 세 참여자 역할 점수를 표준화(평균=0, 표준편차=1)한 후 특정 역할 표준화 점수가 평균(0)보다 높고 동시에 나머지 역할 점수들보다 높은 경우 이를 해당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류 기준에 의해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으면 ‘역할없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명시한 구분은 성차를 고려하지 않아 여자의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과소대변될(under-represented)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백지현,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로 역할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조명하였다.

2)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인 수치심과 죄책감 경향성은 Tangney, Wagner, Gavlas와 Gramzow(1991)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의식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or Adolescent: TOSCA- A)를 류설영(1998)이 국내 청소년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2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각 상황에서의 수치심과 죄책감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에서 ‘매우 그럴 것 같다’(5)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또는 죄책감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정서 척도의 Cronbach’s α 는 수치심 .81, 죄책감 .83이었다.

3) 귀인성향

귀인성향은 김현주(2003)가 주변인을 유형화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자 동조집단(피해자 귀인, 대리만족, 가해자지지, 불안동조), 방관자 동조집단(자기방어, 무관심, 쌍방과오), 피해자 동조집단(피해자지지, 규범 지향, 가해자귀인)의 3개 유형, 9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괴롭힘에 대한 귀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 중 가해자 동조집단의 피해자귀인 척도(6문항), 방관자 동조집단의 쌍방과오 척도(5문항, 이하 쌍방귀인), 피해자 동조집단 가해자귀인 척도(4문항)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귀인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귀인성향 척도의 Cronbach’s α 는 피해자귀인 .87, 가해자귀인 .60, 쌍방귀인 .76이었다.

4) 방어자 효능감

방어자 효능감은 Pöyhönen 등(2010)의 방어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척도(Self-efficacy Beliefs for Depending Behavior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참여자역할 질문지(PRQ; Salmivalli

et al., 1996)에서 서술된 방어행동과 일치하며, 방어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쉽다’(1)에서 ‘매우 어렵다’(4)로 평정한다.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방어자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방어자 효능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5) 지각된 학급내 지위

사회적 지위는 지각된 학급내 지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학급내 지위는 학급 구성원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호감 있는 인물로 지각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Mayeux와 Cillessen(2008)이 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개발한 2문항을 사용하여 또래 수용도에 대한 자기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다. 반에서 응답자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와 반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응답자를 좋아하는지를 질문하며, ‘거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에서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7)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높은 점수는 학급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학급내 지위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먼저 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집단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역할 유형 간 빈도분포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χ^2)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점수들과 본 연구에 포함된 7개 심리적 변인(수치심, 죄책감, 가해자귀인, 피해자귀인, 쌍방귀인, 방어자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 점수들 간 관계성 파악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stepwise method)을 실시하였고,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유형 간 심리적 변인 점수들에서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Scheffé)을 통해 검토하였다. 변인 간 관계성 파악은 서론에서 논의했던 대로 성별 각각에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남·여청소년 집단 각각에 대해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남, 여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의 분포

최근 1년간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 24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 행동(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수행에 대해 평정을 시켰고, 응답에 기초하여 참가자를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없음으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화는 Salmivali 등(1996)과 서미정(2008)이 제시한 방법으로 각 성별에 대해 각각 진행하였다. 세 역할 유형과 역할없음에 속하는 학생의 빈도와 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남학생은 방어자-방관자-동조자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방어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방관자와 동조자가 같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 역할없음에 속하는 비율은 남, 여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남 11.3%, 여 10.1%). 한편, 남학생의 방어자 : 방관자 : 동조자 : 역할없음의 비율은 여학생의 방어자 : 방관자 : 동조자 : 역할없음의 비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1.04, p > .05$).

2. 남, 여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 간의 관계

남, 여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수치심/죄책감 도덕적 정서, 피해자/가해자/쌍방 귀인성향,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과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ANOVA 검증은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세 역할 유형 간 심리적 변인 점수

들에서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의 소재 파악을 위해 사후검증(LSD)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ANOVA 검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3> 참조)를 살펴보면, 남, 여학생 모두에서 방어자 역할 행동은 죄책감, 잘못에 대한 가해자귀인, 방어자 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 잘못에 대한 피해자 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남,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방관자 역할 행동은 앞서 언급한 방어자 역할 행동과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방관자 역할 행동은 죄책감, 잘못에 대한 가해자귀인, 방어자 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 잘못에 대한 피해자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덧붙여, 방관자 역할 행동은 남, 여학생 모두에서 잘못에 대한 쌍방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_s = .20, .17, \text{all } p_s < .05$). 즉 쌍방귀인 점수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방관자 역할 행동이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동조자 역할 행동의 경우는 남-여학생 간 유의한 관계성의 차이가 일부 관찰되었다. 동조자 역할 행동이 죄책감, 잘못에 대한 가해자귀인과 부적 상관, 잘못에 대한 피해자귀인과 정적

<표 2> 남과 여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 구분과 빈도(각 성별집단을 기준으로 구분)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없음	합	χ^2
남학생 기준	39 (36.8%)	31 (29.2%)	24 (22.6%)	12 (11.3%)	106명 (100%)	1.04 (p=.79)
여학생 기준	46 (33.3%)	39 (28.3%)	39 (28.3%)	14 (10.1%)	138명 (100%)	

〈표 3〉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과 심리적 요인과의 상관(남학생 n=106, 여학생 n=138)

	방어자 행동	방관자 행동	동조자 행동	수치심	죄책감	피해자 귀인	가해자 귀인	쌍방 귀인	방어자 효능감	학급내 지위	
방어자행동	--	-.67*** (-.55***)	-.24* (-.20*)	.01 (.11)	.50*** (.50***)	-.35*** (-.35***)	.42*** (.30***)	-.02 (-.07)	.31** (.53***)	-.17 (.16)	
방관자행동		--	.14 (.18*)	.16 (-.12)	-.44*** (-.29**)	.35*** (.40***)	-.20* (-.20*)	.20* (.17*)	-.34** (-.52***)	.06 (.12)	
동조자행동			--	-.02 (-.11)	-.26** (-.24**)	.37*** (.50***)	-.22* (-.38***)	.01 (.27**)	-.04 (-.21*)	.32** (.12)	
남학생	M (SD)	17.36 (5.37)	17.42 (4.87)	11.26 (4.58)	36.00 (8.35)	43.04 (7.93)	15.64 (5.60)	14.80 (3.14)	16.74 (3.92)	15.71 (4.35)	8.92 (3.05)
여학생	M (SD)	18.31 (5.09)	18.07 (4.18)	10.38 (3.74)	37.17 (7.95)	43.53 (6.74)	14.72 (5.31)	15.52 (2.66)	16.43 (4.17)	15.12 (3.68)	7.92 (2.93)

위의 계수는 남학생의 상관계수; 아래 ()안 계수는 여학생의 상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주변인 역할집단 간 심리적 요인에서의 점수 차이검증

변인	방어자 ^a	방관자 ^b	동조자 ^c	F	사후검증 (LSD)
	M (SD)	M (SD)	M (SD)		
남학생(n=94)	n=39	n=31	n=24		
수치심	36.38(9.99)	35.81(8.00)	36.50(6.11)	.06	
죄책감	48.05(7.19)	38.71(7.46)	41.46(6.19)	16.29***	a>b=c
피해자귀인	13.23(5.03)	17.97(5.62)	17.58(5.51)	8.35***	b=c>a
가해자귀인	15.90(2.84)	14.19(3.18)	14.33(3.14)	3.37*	a>b=c
쌍방귀인	16.28(3.86)	17.65(4.39)	16.46(3.18)	1.17	
방어자효능감	17.49(4.21)	13.35(3.94)	15.75(4.33)	8.56***	a=c>b
학급내지위	8.05(3.18)	8.48(3.02)	10.67(2.32)	6.31**	c>a=b
여학생(n=124)	n=46	n=39	n=39		
수치심	37.67(8.02)	37.74(8.33)	35.49(7.85)	1.01	
죄책감	47.59(6.38)	41.79(5.82)	40.85(6.05)	15.48***	a>b=c
피해자귀인	11.52(3.94)	16.03(5.49)	18.08(4.09)	23.59***	c>b>a
가해자귀인	16.63(2.50)	14.97(3.07)	14.62(1.95)	7.71**	a>b=c
쌍방귀인	15.59(4.30)	17.05(4.39)	17.59(3.08)	2.91	
방어자효능감	17.67(3.35)	12.95(3.05)	14.13(3.06)	25.96***	a>b=c
학급내지위	8.50(3.02)	7.69(2.57)	8.08(2.99)	.84	

* $p < .05$, ** $p < .01$, *** $p < .001$.

상관을 이룬 것은 남·여학생 모두에서 동일했으나, 쌍방귀인, 방어자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에서는 남·여학생 간 관계성에서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학급내 지위는 남학생에서만($r=.32, p>.01$), 쌍방귀인($r=.27, p>.01$)과 방어자효능감($r=-.21, p>.05$)은 여학생에서만 동조자 역할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남, 여학생 집단 간 차이는 동조자 역할 행동과 관련 심리적 변인 간 관계(쌍방 귀인,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남,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세 주변인 역할 행동은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변인 역할 집단 간 도덕적 정서, 귀인성향,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에서의 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 여학생은 모두 수치심, 쌍방귀인을 제외한 죄책감, 피해자귀인, 가해자귀인, 방어자 효능감에서 유의한 집단 간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의 유의한 F 값 참조). 구체적인 점수 차이 양상을 살펴보면, 남, 여학생 모두에서 죄책감과 잘못에 대한 가해자귀인은 방어자 집단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방관자와 동조자 집단 간에는 점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귀인, 방어자효능감에 있어서는 남·여 집단 간 유의한 점수 차이 양상을 보였는데, 피해자귀인 점수는 두 성별 모두 방어자 집단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남학생에서는 방관자=동조자, 여학생에서는 동조자>방관자로 성별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방어자 효능감의 경우 남학생은 방어자와 동조자가 같고 방관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방관자와 동조자가 같고 방어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두드러진 남·여학생 간 성차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각된 학급내 지위에서 발견되었다. 지각된 학급내 지위 지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는데, 동조자 집단이 방어자나 방관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학급내 지위를 나타내었고, 방어자와 방관자 집단 간에는 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세 주변인 역할집단 간 지각된 학급내 지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남, 여 청소년에서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 예언에 유의한 심리적 변인

각 성별 집단에서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 행동 예언에 유효한 심리적 변인을 찾기 위해, 수치심/죄책감 도덕적 정서, 가해자/피해자/쌍방 귀인,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유의한 변인을 추출하고자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7개 예언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먼저 남학생에서는 죄책감, 가해자귀인, 수치심이 방어자 역할 행동 예언에(36%의 설명량), 죄책감, 수치심, 방어자 효능감이 방관자 역할 행동 예언에(32%의 설명량), 그리고 피해자귀인과 지각된 학급내 지위가 동

〈표 5〉 남·여학생의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 행동 예측에 유의한 심리적 변인(다중회귀분석, stepwise)

성별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i>b</i>	β	<i>t</i>	ΔR^2	<i>R</i> ²	<i>F</i>		
남	방어자 역할 행동	1	(상수)	4.28		1.88	.25	.25	34.21***		
			죄책감	.31	.50	5.85***					
		2	(상수)	-.44		-.17					
			죄책감	.25	.41	4.92***					
			가해자귀인	.47	.30	3.62***					
			(상수)	1.61		.60					
	3	죄책감	.28	.45	5.31***						
		가해자귀인	.50	.32	3.86***						
		수치심	-.10	-.17	-1.99*						
	방관자 역할 행동	1	(상수)	30.06		11.51***	.19	.19	24.42***		
			죄책감	-.30	-.44	-4.94***					
		2	(상수)	25.49		9.00***					
			죄책감	-.35	-.51	-5.90***					
			수치심	.19	.30	3.39**					
		3	(상수)	27.88		9.63***					
죄책감			-.30	-.44	-4.97***						
수치심			189	.29	3.49**						
방어자효능감			-.28	-.23	-2.66**						
동조자 역할 행동		1	(상수)	6.58		5.31***		.13		.13	16.07***
			피해자귀인	.30	.37	4.01***					
		2	(상수)	3.45		2.20*					
	피해자귀인		.27	.33	3.67***						
	지각된 학급내 지위		.41	.27	3.06**						
방어자 역할 행동	1	(상수)	8.99		7.00	.28	.28	53.05***			
		방어자효능감	.60	.53	7.28						
	2	(상수)	3.23		1.69						
		방어자효능감	.42	.37	4.62***						
		죄책감	.20	.32	3.93***						
		(상수)	29.24		18.61***						
방관자 역할 행동	1	방어자효능감	-.72	-.52	-7.16***	.27	.27	51.24***			
		(상수)	24.00		10.97***						
	2	방어자효능감	-.61	-.44	-5.88***						
		피해자귀인	.24	.25	3.33**						
		(상수)	28.61		9.21***						
3	방어자효능감	-.65	-.47	-6.24***							
	피해자귀인	.21	.22	2.89**							
	수치심	-.10	-.15	-2.07*							
	(상수)	5.18		6.33***							
동조자 역할 행동	1	피해자귀인	.35	.50	6.77***	.25	.25	45.77***			
		(상수)	10.04		4.27***						
	2	피해자귀인	.29	.42	5.03***						
		가해자귀인	-.26	-.18	-2.20*						

p*<.05, *p*<.01, ****p*<.001.

조자 역할 행동 예언에(21%의 설명량)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에서는 방어자효능감과 죄책감이 방어자 역할 행동 예언에(35%의 설명량), 방어자효능감, 피해자귀인, 수치심이 방관자 역할 행동 예언에(35%의 설명량), 그리고 피해자귀인과 가해자귀인이 동조자 역할 행동 예언에(27%의 설명량)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에서는 높은 수준의 죄책감과 가해자 귀인, 그리고 낮은 수준의 수치심이 높은 방어자 역할 행동을, 낮은 죄책감과 방어자효능감, 그리고 높은 수치심이 높은 방관자 역할 행동을, 그리고 높은 피해자귀인과 높게 지각된 학급내 지위가 높은 동조자 역할 행동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반면, 여학생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어자효능감과 죄책감이 높은 방어자 역할 행동을, 낮은 방어자효능감과 수치심이 높은 방관자 역할 행동을, 그리고 높은 피해자귀인과 낮은 가해자귀인이 높은 동조자 역할 행동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특징적으로 이전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던 수치심은 7개 예언변인이 함께 투입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남학생의 방어자 역할 행동, 그리고 남, 여학생의 방관자 역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높은 수치심은 남학생에서는 방어자 역할 행동을 낮추고 방관자 역할 행동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학생에서는 방관자 행동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년간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통적불링 상황에서 주변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 귀인성향(피해자귀인, 가해자귀인, 쌍방귀인), 방어자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가 사이버불링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 참가자 822명 중 244명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30%에 이르는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것으로, 이는 적지 않은 비율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이 중 89.3% (218명/244명; 남학생 88.7%, 여학생 89.9%)가 특정 주변인 역할로 유형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이 또래 괴롭힘의 한 현상으로 방어자, 동조자, 방관자라는 집단 역동을 개입시키는 폭력 유형임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빈도 분포는 선행연구에서의 분포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유형이 방어자(36.8%), 방관자(29.2%), 동조자(22.6%), 역할없음(11.3%) 순으로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방어자(33.3%), 방관자(28.3%)와 동조자(28.3%), 역할없음(10.1%) 순으로 높았다. 이는 사이버불링 목격 경

험이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변인 역할 유형을 구분한 고아라(2016)의 연구결과와 구별되는데, 고아라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역할없음(29.8%), 동조자(26.8%), 방관자(24.4%), 방어자(19%) 순으로, 여학생은 방어자(30.1%), 방관자(30.1%), 동조자(22.4%), 역할없음(17.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고아라(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전통적 또래괴롭힘을 다룬 선행연구들(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한하나, 오인수, 2014; Salmivalli et al., 1996)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여학생은 방어자, 방관자 역할을 많이 하고 남학생은 동조자, 동조/강화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차이는 유형 구분의 기준이 달라서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채택하던 전체 참가자 점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이 아닌 해당 성별 집단 참가자 점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는 남학생은 동조자가, 여학생은 방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방어자, 동조자 순으로, 여학생은 방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다르게 직접적인 방식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Salmivalli, Kaukianinen, & Lagerspetz, 2000). 따라서 남녀가 함께 포함되어 점수가 표준화

된 경우 여성의 공격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다(백지현, 2010). 이 같은 선행연구의 유형 구분 방식이 남학생은 동조자, 여학생은 방어자 쪽으로 높게 유형화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같은 성별의 점수들과 비교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사한 공격성 준거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주변인 하위 유형 결정 방법으로 인해 주변인 유형 간 빈도 분포에서 남-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본 연구는 주변인 유형 간 빈도 분포에서 남-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청소년 불링에 대한 높은 경각심과 불링 예방 및 개입 접근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여학생 청소년 집단은 물론 남학생 청소년 집단에서도 방어자 주변인 집단이 증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7개 심리적 변인(죄책감, 수치심, 피해자귀인, 가해자귀인, 쌍방귀인, 방어자 효능감, 지각된 학급내 지위)과 방어자, 방관자, 주변인이라는 세 주변인 역할 행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상관, 집단 간 점수 차이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 및 집단 간 점수 차이 검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죄책감이 높고, 문제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으며, 방어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방어자 행동을 더 높게 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방관자나 동조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개 심리적 변인이 예언변인으로 함께 투입된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결과는 사이버불링의 방어자 주변인 역할에서는 죄책감, 가해자귀인, 방어자효능감이, 동조자 주변인 역할에서는 피해자귀인이, 방관자 주변인 역할에서는 방어자효능감이 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방어자 역할에 있어서는 죄책감은 남, 여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변인이었으나, 가해자귀인은 남학생의 방어자 역할 행동에, 방어자효능감은 여학생의 방어자 역할 행동에 특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쌍방귀인은 상관분석에서 남, 여학생의 높은 방관자 역할과 관련이 있었고, 여학생에게서만 높은 동조자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지각된 학급내 지위는 상관, 점수 차이검증, 회귀 결과 공통적으로 남학생의 동조자 역할 예언에 유용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학급내 지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남자 청소년일수록 동조자 역할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치심 도덕적 정서와 관련된 결과를 논하면, 수치심은 상관과 집단 간 점수 차이검증에서는 주변인 역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7개 예언 변인을 함께 투입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차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수치심은 남학생에서는 방어자 역할 행동을 낮추고 방관자 역할 행동을 높이는 역기능적 역할

을, 여학생에서는 방관자 행동을 낮추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치심 경향성을 ‘자신감’, ‘시선의식’, ‘자책감’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을 때 각 하위변인들이 주변인의 방관 및 동조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반대로 일부 하위요인은 방어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박진희와 권미희(2014)의 주장과 같이 수치심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한 결과들은 전통적불링의 방어자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김민지, 2013; 김승천, 이준원, 2016; 김현주, 2003; 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Barchia & Bussey, 2011)와 일치하는 결과로 사이버불링 상황에서도 주변인의 죄책감 경향성과 방어자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괴롭힘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수록 방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심리적 변인이 사이버불링 주변인의 방어 행동뿐만 아니라 방관 및 동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죄책감 경향성과 가해자 귀인, 방어자 효능감은 증가시키고 피해자 귀인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방관자와 동조자 역할을 해왔던 주변인을 방어자 역할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위한 특화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이 오프라인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이수진, 정혜진, 한의정,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학급 혹은 학교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예방프로그램은 잘못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청소년의 성향을 변화시키고 사이버불링 목격 시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즉,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를 촉발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불링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는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즉, 방어자 효능감을 높이는 접근을 취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보고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은 사이버불링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몰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방어자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제영 등(정제영, 이승연, 오인수, 강태훈, 류성창, 2013)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역할극과 토의를 통해 반복 학습하여 습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학교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괴롭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진 것과 같이(Battistich, Schaps, Watson & Solomon, 1996), 이러한 개입은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 사이버불링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이버불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 역할에

주목하여 방어자, 방관자, 동조자의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 개인내 요인을 규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남녀 청소년 간에 이들 요인에서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보다 선별적인 사이버불링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참가자의 일부 반응을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불링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행동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기보고 뿐 아니라 또래 평정, 교사 평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주변인 역할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내 심리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탐색해 보았다. 하지만 일부 환경적/상황적 요인(예, 피해자 특성, 가해자의 피해자를 아는 정도)도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는 이러한 사이버불링 주변인 역할과 관련이 높은 환경적/상황적 요인의 확인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아라 (2016).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중학생 주변인의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 공감능

- 력 및 사이버공간 특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김민지 (2013). 정서적 공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책임감이 또래 괴롭힘 방어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각된 인기도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천, 이준원 (2016).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내 지위가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방어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7, 22-40.
- 김은미 (2006). 초등학교의 규칙위반행동과 도덕적 정서와의 관계: 죄책감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교급수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현주 (2003). 집단 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아 (2016).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진희, 권미희 (2014). 남자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가 학교폭력 역할유형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4), 107-120.
- 박현수, 정혜원 (2018). 청소년 사이버 언어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9(2), 217-240.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백지현 (2010). 남녀청소년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에 따른 인지적·정서적·사회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남서 (1996). 초·중등학생의 인기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송지연 (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 (2017).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유형별 대처방식과 심

- 리적 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오인수 (2011).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 이수진, 정혜진, 한희정 (2017). 한국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2), 107-134.
- 이숙, 정미자 (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2), 103-112.
- 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09-135.
- 이주형, 안순철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에 대한 연구: 미국의 법적 대응의 특징과 법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1), 133-157.
- 장은영 (2012).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귀인편향과 방관적 태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제영, 이승연, 오인수, 강태훈, 류성창 (2013). 주변인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연구*, 44(2), 119-143.
- 최기원 (2012). 남녀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와 또래괴롭힘방어 및 방관행동의 관계;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유연옥 (2000). 특별주제/N 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사회도덕적 위반사태에 대한 참여자 입장에서의 아동의 정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61-75.
- 최숙영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6), 35-48.
- 최지훈, 남영옥 (2017). 학교폭력과 주변인 역할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6(2), 275-297.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한하나, 오인수 (2014). 괴롭힘 주변인의 행동과 감사, 공감, 학교소속감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27(4), 53-75.
- 홍솔지, 최윤경 (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39-60.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archia, K., & Bussey, K. (2011). Predictors of student defenders of peer aggression

- victims: Empathy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4), 289-297.
- Battistich, V., Schaps, E., Watson, M., & Solomon, D. (1996). Prevention effects of the Child Development Project: Early findings from an ongoing multi-site demonstration tria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1(1), 12-35.
- Beran, T., & Li, Q.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6-33.
- Caprara, G. V., & Steca, P. (2005). Self 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rosocial behavior conducive to life satisfaction across ag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2), 191-217.
- Cillessen, A. H., & Bellmore, A. D. (1999). Accuracy of social self-perceptions and peer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650-676.
- Cillessen, A. H.,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Dovidio, J. F., Piliavin, J. A., Schroeder, D. A., & Penner, L. A. (2017). *The social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Psychology Press.
- Eder, D. (1985). The cycle of popu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female adolescents. *Sociology of education*, 154-165.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Hillsdale.
- Gini, G., Pozzoli, T., Borghi,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17-638.
-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Basil Blackwell.
- Hinduja, S., & Patchin, J. W.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3), 206-221.
- Hoff, D. L., & Mitchell, S. N. (2009). Cyberbullying: Causes, effects, and remedi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7, 652-665.
- Holfeld, B. (2014). Perceptions and attributions of bystanders to cyber bully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8, 1-7.
- Jones, L. M., Mitchell, K. J., & Turner, H. A. (2015). Victim reports of bystander reactions to in-person and online peer harassment: A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12), 2308-2320.
-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22-S30.
- Kowalski, R. M., & Limber, S. P. (2013). Psychological, physic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1), S13-S20.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 *Cyber Bullying: The new moral frontier*.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Ltd.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
- Lewis, Y. (2003). The self as a moral concep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2), 225-237.
- Lynn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4), 512-527.
- Mayeux, L., & Cillessen, A. H. (2008). It's not just being popular, it's knowing it, too: The role of self-perceptions of statu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peer status and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7(4), 871-888.
- O'connell, P., Pepler, D., &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4), 437-452.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 Pöyhönen V., Juvonen, J., & Salmivalli, C. (2010). What does it take to stand up for the victim of bullying?: The interplay between personal and social factors. *Merrill-Palmer Quarterly*, 56(2), 143-163.
- Quirk, R., & Campbell, M. (2015). On standby? A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witnesses to bullying and their bystander behaviour. *Educational Psychology*, 35(4), 430-448.
- Raskauskas, J., &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64-575.
- Salmivalli, C. (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4), 453-459.
- Salmivalli, C., Kaukiainen, A., & Lagerspetz, K. (2000). Aggression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peers: Do gender and type of aggression matte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1(1), 17-24.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 Pöyhönen, V. (2012). Cyberbullying in Finland.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57-72.
- Shultz, T. R., & Schleifer, M. (1983). Towards a refinement of attribution concepts. In J. Jaspars, F. D. Fincham, & M. Hewstone (Eds.),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pp. 37-62). New York: Academic Press.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 147-154.
- Song, J., & Oh, I. (2018).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in cyberbullying situa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8, 273-282.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Gavlas, J., & Gramzow, R. (1991).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or adolescents (TOSCA-A)*.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arabulus, T., Heiman, T., & Olenik-Shemesh, D. (2015). Cyber bullying among teenagers in Israel: an examination of cyber bullying, traditional bullying,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4, 707-720.
- Thornberg, R., & Jungert, T. (2013). Bystander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Basic moral sensitivity, moral disengagement and defender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ce*, 36, 475-483.
- Twemlow, S. W., Fonagy, P., & Sacco, F. C. (2004). The role of the bystander in the social architecture of bullying and violence in schools and communiti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36, 215-232.
- Willard, N. E.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S14-S21.

원고 접수일 : 2020. 08. 07

수정 원고접수일 : 2020. 09. 11

게재 결정일 : 2020. 09. 25